

동남아 불교석학 '바쁜 여름'

7·8·9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집중 불교사상·사회윤리등 주제 다양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지향한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7월부터 잇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봉선사(주지 밀운)와 운남성 사회과학원(원장 하요하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불교학술회의'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공스님(?~1363)을 조명한다. 중국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8월19일부터 12

일까지 개최되는 이 세미나에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동아시아 8개국 1백여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한다. 한국 대표로는 허홍식(정신문화연구원) 신규택(연세대 철학과) 교수와 율운(봉선사 회주) 인묵(회암사 주지) 스님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주최하고 한국중앙철학회(회장 이장수) 철학연구회(회장 엄정식) 한국공자학회(회장 송대훈) 등이 공동주관하는 '국제중국철학회 국제세미나'는 7월23일부터 28일까지 '동아시아 철학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동국대에서 개최된다. 230여명이 발제에 나서고 1천8백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이 세미나에서 발표될 조석택교수(뉴욕주립대, 미국)의 '불교와 사회정의' 김복자교수(홍콩대, 홍콩)의 '시구철학에서 한국의 선불교 재평가' 와리코교수(샌디에고주립대)의 '지논의 무명관' 등 불교 주제가 관심을 끈다.

동국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9월중 개최할 '한·중 미술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조각, 회화, 건축 등의 비교를 통해 두 나라의 미술 전파와 수용을 고찰하는 세미나. 특히 마세장교수(북경대 박물관)가 중국 사천 지방에 있는 초기 석굴사원의 불상이 한반도에 전래된 과정을 살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고려연구회(이사장 서길수)도 학습원대학(學習院大學, 일본) 동양문화연

구소 在日조선역사고고학회(조총련관련단체)와 공동으로 7월20, 21일 이틀간 학습원대학 창립1백주년기념회관에서 고려 고분벽화를 주제로 '고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고구려벽화를 통해 본 생활풍속 복식 종교 △고구려벽화와 일본 신라 백제고분벽화의 비교연구 등을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학자 8명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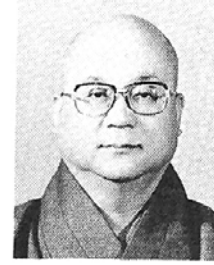
이외에도 아세아민족학회(회장 김선종)가 '제2회 아세아 민족학 국제학술회의'를 강릉문화원에서 9월중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태국, 인도 등 4백여명의 학자가 참가해 민족축제·민속과 종교·민속이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종욱 기자

나와 경전



울장



인 환 (동국대 명예교수)

내가 <울장(律藏)>을 처음 접한 것은 1951년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하여 출간한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혜수 율사를 만나 지도를 받았던 시절이었다. 선암사에서 참선정진하며 약 1년동안 원주의 소임을 맡았다. 그때에 감사 즉 총무의 책임을 맡고 계셨던 석암 율사와 함께 3일에 한 번 정도 돌이켜서 커다란 결망을 짊어지고 약 십리 길을 걸어서 산을 내려가 서면의 부전시장을 찾았다. 거기서 갖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40명 대중에 공양할 찬거리를 사서 가득한 무거운 걸방을 등에 지고 여름 겨울 할 것없이 땀을 흘리면서 산사를 향해 오르내리곤 하였다.

그 때 내 나이 갓 스물이었다고, 석암 율사는 40세가 약간 넘으신 때였다. 그러는 동안 항상 나란히 걸어서 길을 오가면서 선법문을 주고 받거나 선방에 내려오는 갖가지 일화를 들려주시고, 특히 <울장>에 관한 가르침을 일년여에 걸쳐서 길위에서 배울수가 있었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백골난방이라

로 돌아온 고향에 의해서 전래되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흔히 <울장>이라면 옛적 인도의 기후 풍토 습속에서 초기불교 당시 수행생활의 규범이 되었던 것으로 생활을 속박하는 무거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의 모든 상황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우리 시대와 사회, 그리고 승가의 갖가지 사상적 혼란, 정신적 혼미, 생활상의 부패 등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울장>의 정신을 재평가하여 어렵고 잘못된 우

석암율사 구술로 40년전 울장과 인연 중생 삶 밝게 비추는 수행규범 결집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뒤에 해인사에서 자운성우 율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에 중국 상해의 빈가정사에서 출판된 대장경본의 <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착실하게 보게 되었다.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 유학했을 때는 세계적인 불교계학연구의 대가 히라카와 아카라교수에게서 울장을 비롯한 계율강의를 4년간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도 <신라불교계율사상연구>를 제출해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일어로 출판되었던 박사학위논문과 그 동안에 쓴 논문들 가운데 계율에 관한 것을 모아서 <한국불교계율연구>(1)도 출판했다. 40여년전 석암율사에게 길위에서 구술로 배운데서 부터 시작된 나와 <울장>과의 인연은 이처럼 오늘까지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불교교단이 구성되어 출가수행대중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수행생활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불교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가대중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 이것을 법하면 법칙을 적용하여 수행생활의 규범으로 삼게한

리 중생의 삶을 밝게 비추어 주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소승불교는 출가자 중심이므로 그 <울장>도 출가자를 위한 것이 주가 되고 있으나, 대승불교의 <울장>은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眾生)과 자리아타(自利利他)를 실천하는 보살들을 위한 계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도 넓고 또한 사회성도 증강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이 그러하지만 이 <울장>은 특히 우리 중생들이 진리의 여려한 세계로 나아가기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출가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에 귀의한 우바이, 우바이들이라든 이 <울장>을 꼭 접해보기를 권한다.

우리들이 <울장>의 가르침대로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사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중도의 지혜로써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악업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울장>은 한글대장경에 우리말 번역이 되어있다. 울장연구서로 불만인 것은 <울장연구>(박영길 역)와 <울장>(법해 역), <남북전통장비교연구>(이지관 지) 등이 있다.

"무아사상, 美 초월주의 배경"

류황태교수 '불교에서 본 에머슨의 사상' 논문



계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에머슨의 사상이 말의 유희에만 머물렀다"며 "이것이 서양식 합리주의의 허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류황태교수(동외대 영어영문학)가 19세기 미국의 시대정신을 주도했던 에머슨(1803~1882)과 플라(1810~1850)의 초월주의(超越主義)를 불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사상적 동질감을 이끌어낸 논문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류교수는 지난 5월 열린 동외대 미국학연구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한 '불교에서 본 에머슨의 사상'과 '마가렛 플라와 사상과 생애'에서 "두 사상가는 자아(我)라는 것이 환경의 산물일 뿐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를 '현상'으로 해석했다"며 "전쟁과 산업화의 반동으로 생겨난 미국의 초월주의 사상에서 '절대진리'(Great Spirit) '중도'(middle) '존재'(being) '자기수양'(self-culture) 등은 불교의 영향으로 나온 말이다"고 지적했다.

류교수에 따르면 인생의 고(苦), 과거에의 집착, 통찰력, 무아(無我)·허상의 인식, 고통이 사라짐, 지극한 기쁨 등으로 이어지는 두 사상가의

사유 여정은 불교의 사성제와 유사하다는 것.

류교수는 "에머슨의 '하나된 영혼'(Unity of Over Soul)은 다른 표현으로 주객일체로 불교에서의 깨달음과 비슷하지만 수행에서 우러난 진정한

범어사전 CD롬 '마무리 작업'

11월 출시... 이종철-랭카스터 교수 합작

산스크리트어 사전 CD롬이 11월 출시된다. '버블리 불교학 시리즈'로 출시될 이 CD롬은 이종철교수(정신문화원 종교철학과)가 범어경전을 입력하고 랭카스터교수(버클리대 언어학)가 컴퓨터를 이용해 경전의 낱말을 색인하는 작업을 통해 CD롬으로 제작된다.

입력작업에 사용된 범어경전은 <불교 산스크리트 텍스트>(전23권, 인도)를 비롯해 <보요경> <능가경> <대승인승가경> <법화경> <화엄경 심법계품> <중론> <구사론> 등이다.

이교수는 "현재 입력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11월 랭카스터교수의 지원을 받아 색인작업과 CD롬 제작을 거쳐 출시된다"며 "불교용어가 부족하고 범어의 용례도 없는 현존 범어사전의 허점을 보완한 범어사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단신

'석림' 1~30집 합본

동국대 석림회(회장 정필)가 <석림논총합(釋林論叢合)>을 한정 발간한다. <석림> 1집부터 30집까지 실렸던 논문들을 한데 모아 엮어낸 <석림논총합>에는 사상·교리·문학 등을 주제로 총 6백여 논문이 게재된다.

근대불교사를 고찰해 한국불교의 정화과정을 조명해 운영해 교수(서강대 종교학과)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등의 논문과 오형근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교의 태아관', 조용길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교와 한국사회' 등을 실고있다. 전 3권 총 4350쪽, 가격 9500원. (02)260-3693

'회당학보' 4집 발간

회당학회(회장 변종오)가 <회당학보> 제4집을 발간했다. 각각 50년 기념호로 제작된 <회당학보>에는 진언·언어·역사·사상 등의 기념·연구논문 10편을 비롯해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종교철학)의 '역주연구 <니아아후트라>'를 실고 있다. (02)942-3991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은 선사시대 유물로부터 현대미술품에 이르기까지 1만5천여점의 유물을 소장한 한국의 대표적 미술관이다. 이 사이트는 소장유물중 △고분유물 △불교미술 △도자기 △서화 △근대미술 △현대미술 등 2백여점을 공개·전시하고 있다.

불교미술품에는 지장도(보물784호), 아미타삼존도(국보218호), 수월관음보살도(보물926호), 신라백지묵서변상도(국보196호), 이상좌불화첩(보물593호) 등 탱화(불상)와 금동미륵반가상(국보118호), 금동신묘명상존불(국보85호) 등 불상 1백여점을 비

롯해 용두보살, 청동범종, 금동다초소탑, 정동은입사, 봉황문, 향합 등 우리나라 불교예술의 정수를 알려주는 빼어난 예술품들이 전시돼 있다.

고려미술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불화는 현재 1백 50여점이 남아있다. 이중 국내에는 호암미술관 등에 10여점이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고려불화전, 조선전기국보전, 대고려국보전 등 호암미술관이 제작한 10여종의 문화재 도록도 제곱돼 열람은 물론 주문도 가능하다. 주소 <http://www.hoammuseum.org/>

아미타삼존도등 2백여점 화상공개

호암미술관은 선사시대 유물로부터 현대미술품에 이르기까지 1만5천여점의 유물을 소장한 한국의 대표적 미술관이다. 이 사이트는 소장유물중 △고분유물 △불교미술 △도자기 △서화 △근대미술 △현대미술 등 2백여점을 공개·전시하고 있다.

불교미술품에는 지장도(보물784호), 아미타삼존도(국보218호), 수월관음보살도(보물926호), 신라백지묵서변상도(국보196호), 이상좌불화첩(보물593호) 등 탱화(불상)와 금동미륵반가상(국보118호), 금동신묘명상존불(국보85호) 등 불상 1백여점을 비

롯해 용두보살, 청동범종, 금동다초소탑, 정동은입사, 봉황문, 향합 등 우리나라 불교예술의 정수를 알려주는 빼어난 예술품들이 전시돼 있다.

고려미술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불화는 현재 1백 50여점이 남아있다. 이중 국내에는 호암미술관 등에 10여점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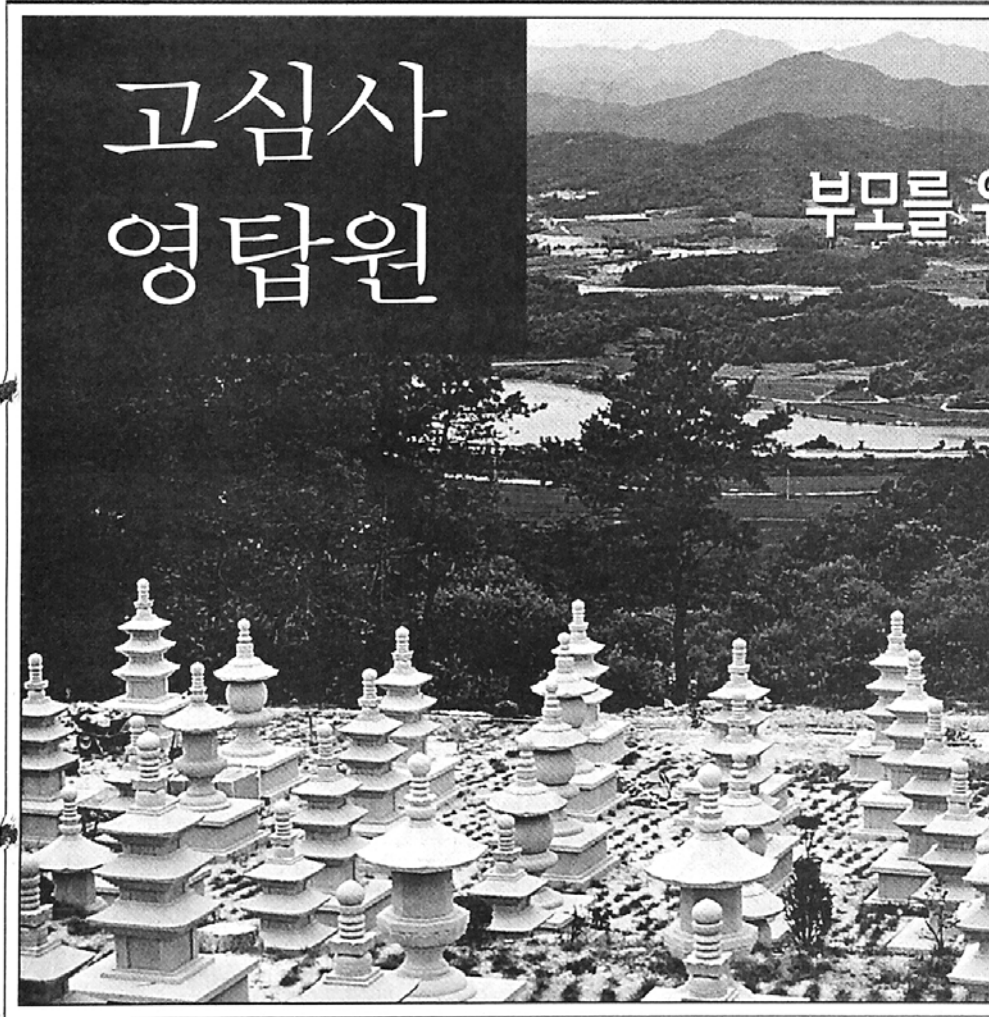

이외에도 고려불화전, 조선전기국보전, 대고려국보전 등 호암미술관이 제작한 10여종의 문화재 도록도 제곱돼 열람은 물론 주문도 가능하다. 주소 <http://www.hoammuseum.org/>

고심사 영탑원

부모를 위한, 가족을 위한 영가의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동남양의 아늑한 보금자리
영가여, 불보살과 함께 평안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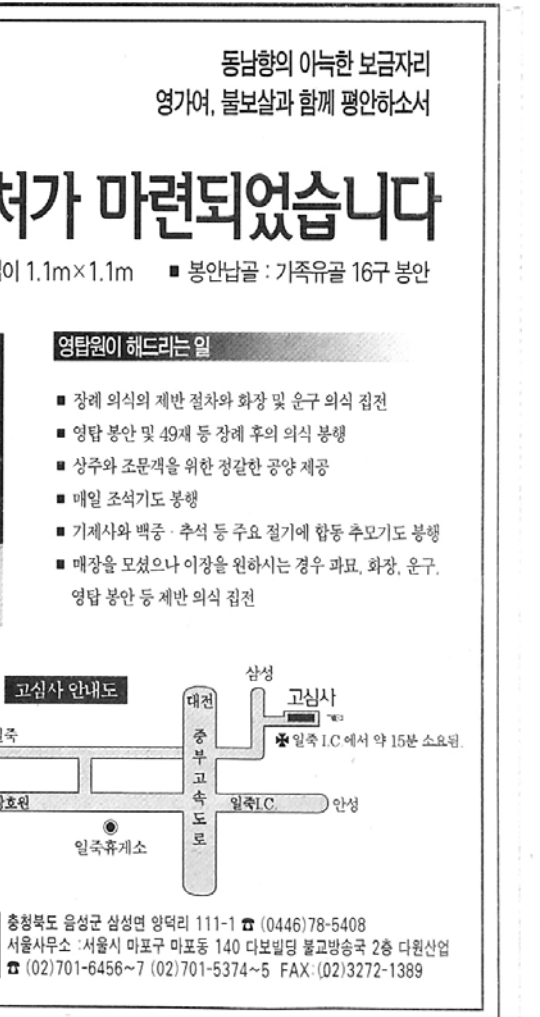
■ 영탑의 크기 : 높이 2.6m, 넓이 1.1m×1.1m ■ 봉안납골 : 가족유골 16구 봉안

영탑원이 헤드리는 일

- 장례 의식의 제반 절차와 화장 및 운구 의식 집전
- 영탑 봉안 및 49재 등 장례 후의 의식 봉행
- 상주와 조문객을 위한 정갈한 공간 제공
- 매일 조식기도 봉행
- 기제사와 백중·추석 등 주요 절기에 합동 추모기도 봉행
- 매장을 모셨으나 이장을 원하시는 경우 파묘, 화장, 운구, 영탑 봉안 등 제반 의식 집전

고심사 안내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임덕리 111-1 ☎ (0446) 78-5408
서울사무소 : 서울 마포구 미포동 140 디모빌딩 불교방송 2층 다원산업 ☎ (02) 701-6456~7 (02) 701-5374~5 FAX: (02) 3272-1389